

13조 풀리는 소비 쿠폰... 내수 깨우는 '마중물' 될까

국회본회의서 지급안 통과

개인당 15만~50만 원씩 지급 소비 늘리는데 도움 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효과 반신반의 대형마트선 쓸 수 없게 돼 논란 돈 많이 풀려 물가 자극 걱정도

내수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3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에 따라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안이 통과됐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비 쿠폰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2조9000억 원을 부담하게 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서 모두 중앙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이 지급될 경우 상당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비 쿠폰 지급의 직접적



인 수혜자로 기대되는 소상공인들은 소비 쿠폰의 효과를 반신반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전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을 때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은 됐다"면서도 "대형마트는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대형 식자재마트나 병원 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소상공인에게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 쿠폰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 등 유통 업체는 소비 쿠폰 사용자 제한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 쿠폰을 지급받으면 주로 생필품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대형마트 실적은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안타깝다"며 "지금 대형마트라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다면 편리한데 지원금이 나올 때 대형마트가 제외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1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갑자기 시장에 풀리는 만큼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년 1월 2.2%에서 조금씩 하락해 5월에는 1.9%까지 내렸으나 6월에는 다시 2.2%로 올라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 쿠폰이 지급되면 내수 진작 효과는 있어도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이른 장마와 폭염 등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심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물가가 오를 우려가 있다.

정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 경제 TF 회의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언급하며 물가 상승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생활 물가를 살필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물가 상승이 있더라도 소비 진작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소비심리를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영에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현재 소비 여력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본다"며 "당장 써야 하는 쿠폰을 주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지만 계속 정책 자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심리를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양날의 검' 소비 쿠폰



데일리 Talk

김나윤 산업경제부 기자

가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물가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이 30조5000억 원에 달하면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도 포함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재정학회 분석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 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할 수 있다. 재정 적자가 클수록 그 영향은 더 크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 13조 200억 원을 활용해서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과 지역에 따라서 15만~50만 원씩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져야 단기간에 소비를 자극하고 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과감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쿠폰을 받기는 국민조차 높은 장바구니 물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소비 쿠폰이 과연 물

가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물가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이 30조5000억 원에 달하면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도 포함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재정학회 분석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 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할 수 있다. 재정 적자가 클수록 그 영향은 더 크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과 지역에 따라서 15만~50만 원씩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져야 단기간에 소비를 자극하고 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과감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쿠폰을 받기는 국민조차 높은 장바구니 물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소비 쿠폰이 과연 물

nykim@skyedaily.com

또 금배추 파동 오나... 장마철 한 포기 21% 쯤췌

무더위에 착황 위축 수급 불안 시금치 50%·대파 36%도 급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채소류 가격이 들쭉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배추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일 배추 1포기의 평균 소비자 가격이 3688원으로 한 달 전보다 20.9%(637원) 올랐다고 발표했다. 아직 평년 대비로는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최근 한 달간의 가파른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무더위와 장마로 작황이 위축되면서 가격이 빠르게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배추 공급은 예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배추 재배 면적이 3418헥타르(ha)로 최근 5년 평균보다 23.9%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량도 평년 대비 24.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수에 따라 작황이 나빠질 경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고랭지 지역 재배 확대 및 생육관리 지원 △사전 수매계약 체결 △분배추 수매비축 물량 확대 △일시적 공급부족 대비 비상공급 체계 유지 등에 힘쓸 계획이다.

국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수입도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지난해 수입량은 4168t으로 전년(164t) 대비 2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파도 3배가량 늘어 2만4000t에 달했다.

대형마트들은 가격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마트는 4~6일 상추, 깻줄, 참새콩 전 품목 '2+1' 행사와 애로박 할

인(1380원→990원)을 진행하며, 4~10일에는 알배기배추 30% 할인, 무 2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3~9일 감자 20% 할인과 청양고추·오이·맛고추 구매 시 5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도 5~6일 모듬쌈·대파·양파 등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폭염 등 이상 기온으로 채소값이 언제든 급등할 수 있어 비축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가격 상승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금치(100g) 가격은 1002원으로 한 달 전보다 49.6%나 치솟았다. 대파(1kg) 가격은 36.0% 올랐고 열무(1kg) 가격도 17.8% 올랐다. 적상추(100g) 가격 상승률은 17.0%였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맛있는우리말200



눈으로 읽고 입으로 즐기는 우리말!

일상 속 다양한 표현에 풍미를 더하다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막상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답변을 내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일상의 언어를 주제 삼아 우리말 어법을 넘나들며 두서없이 우리말 산책을 떠나보려고 나섰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글이지만 누구나 다 잘 쓸 수는 없는 게 또한 글이다. 잘 쓴 글은 읽는 이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다. 그래서 글은 마음으로 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마음으로 써서 감동을 주는 글이라 해도 기본 어법에 따라 쓴 글이 아니라면 결코 잘 쓴 글이라고 박수를 보낼 수는 없다. 글에도 품격인 '문격(文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이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필자로서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 프롤로그 중

박재역 지음 | 272쪽 | 17,000원 | 글로벌콘텐츠